

## 5. 국내 은행의 높은 외화 LCR 수준 유지 배경

(국제국 외환건전성조사팀 유기한·이지혜·허진우)

1. 국내 은행의 외화 LCR<sup>1)</sup>은 23년말 154.4%(22년말 136.1%)로 지난해 상당폭 상승하여 규제기준(80%)의 2배 수준에 육박하였다. 금년 1월에는 144.1%<sup>P</sup>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기준과 예년 평균(2020~2022년중 115.0%)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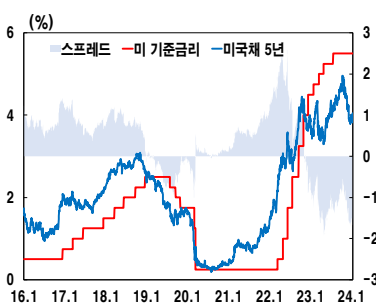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22년 11월 이후 장·단기금리의 역전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은 장기조달·단기운용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외화 LCR의 상승에 기여하였다. 은행들은 KP 발행, 장기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가 짧고 안정성이 높은 콜론, 고유동성자산(미국채 등)을 늘리거나 단기차입을 상환하였다.

2. 둘째, 22년중 외화예수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외화유동성을 선확보한 영향 등으로 23년중에도 은행들의 양호한 외화유동성 상황이 지속되었다.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원으로서 고유동성자산 등을 늘리는데 활용되는 외화예수금이 지난해말 951억달러(8개 은행 기준)로 20~21년중 평균(812억달러)을 크게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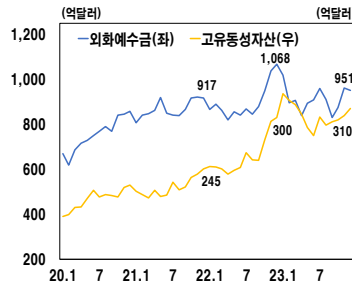
3. 셋째, 은행들은 통합 LCR이 규제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화 LCR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외화 LCR이 통합 LCR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크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확보되는 외화 부문의 LCR 조정을 통해 통합 LCR의 규제기준(95%)을 일시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4. 이처럼 23년 국내 은행의 외화 LCR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배경은, 외화유동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美 장단기 금리역전,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등의 여건 변화에 은행들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년중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 완화에 따라 외화 LCR 수준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수지 개선, 유동성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하락 정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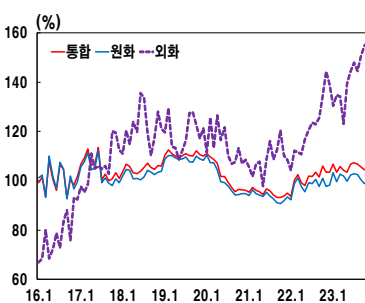
<미국채 5년물 및 기준금리> <외화예수금 및 고유동성자산> <통합, 원화, 외화 LCR>



자료: BIDAS



주: 8개 은행 기준  
자료: 외환전산망



주: 8개 은행 기준  
자료: FAIRS

1) 시스템위기 상황에서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유출액-유입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text{외화LCR} = \frac{\text{고유동성외화자산}}{\text{향후 30일간 외화순현금유출액}} \times 100 \geq 80\% (\text{월평균})$$